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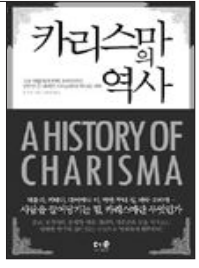
북스

Books

‘대중 끄는 힘’ 2천년간 어떻게 변해 왔나

카리스마의 역사

존 포츠 지음



히틀러, 케네디, 다이애나 비, 마틴 루터 킹, 버락 오바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이 가진 카리스마로 군중을 휘어잡은 이들이다. 이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정도로 해석되는 카리스마(charisma)는 현대에 와서 정치인이나 연예인, 더 가까운 직장 상사나 친구에게 까지도 흔히 쓰는 말이 됐다.

지성사 연구자 존 포츠 교수가 쓴 ‘카리스마의 역사’는 카리스마란 무엇이며, 그 기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종교, 정치·사회, 경제학, 대중문화 등을 아우르는 방대한 연구와 깊이 있는 시선으로 조명한 책이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카리스마는 ‘은혜’나 ‘효’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리스(charis)에서 기원한 것으로 애초에 종교적인 용어였다.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 쉽게 쓰여진 시기는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

카리스마라는 말에 종교적 의미를 입혀 적극적으로 사용한 인물은 사도 바울. 그는 기원후 50~62년 편지에서 신의 은총으로 얻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뜻으로 이 말을 썼다.

종교와 마법의 경계가 모호했던 초기 기독교는 사도들이 치료나 예언 등 성령이 내린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했으며, 바울은 이런 사도의 영적 능력들을 ‘카리스마’에 포함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초자연적 능력보다 성서와 교



현대 들어 카리스마라는 용어는 지도자적 권위나 재능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매력과 자질을 가리키게 됐다. 하지만 그 기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 왼쪽부터 히틀러, 다이애나 비, 버락 오바마.



현대 들어 카리스마라는 용어는 지도자적 권위나 재능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매력과 자질을 가리키게 됐다. 하지만 그 기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 왼쪽부터 히틀러, 다이애나 비, 버락 오바마.



현대 들어 카리스마라는 용어는 지도자적 권위나 재능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매력과 자질을 가리키게 됐다. 하지만 그 기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다. 왼쪽부터 히틀러, 다이애나 비, 버락 오바마.

리, 주교의 권위에 기반 체계를 잡아 나갔고 카리스마라는 말도 점점 잊히게 됐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밀려났던 카리스마가 다시 생명력을 얻은 것은 막스 베버(1864~1920)가 ‘카리스마적 권위’의 개념을 도입한 20세기 초로, 비범한 재능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종교적 색채는 거의 남지 않았다.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기존 권위에 도전하고 전통을 없애면서 혁명적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나가는 이로, 전통적이고 사회 합리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와는 다르다.

반세기 가 지나면서 카리스마는 지도자적 권위나 재능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매력과 자질을 가리키게 된다. 1960년대 자신감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TV에 등장해 대중을 사로잡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로, 대대적에는 케네디를 ‘카리스마 있다’고 추켜올렸다.

정치인보다 유명한 연예인이 넘치는 요즘 시대에도 별다른 재능 없이 그저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famous for being famous) 단순 유명인과 카리스마를 가진 유명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팔리는 유명인의 명성과 달리 카리스마는 천부적으로 강력한 매력과 남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저자는 2천 년간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카리스마의 개념이 이어진 이유도,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카리스마에 매혹 당하는 이유도 ‘신비로움’ 때문이라고 요약한다.

카리스마란 용어에 얽힌 2천여 년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 다소 장황하고 특히 고대 부분이 딱딱하지만, 하나의 개념을 총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룬 의미 있는 인문·역사서라 할 수 있겠다. 방대한 양의 참고도서 목록과 주석도 유용하게 쓰인다. <더숲·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리영희가 지닌 교양의 힘 새 교양 촉발하는 원동력

한국 현대사의 비관적 지성의 상징인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활순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리영희 프리즘-우리시대의 교양’이 출간됐다.



‘전환의 시대’에 리영희는 청춘들에게 필독서였고 교양의 첫 번째 목록이었다. 일방적인 존경과 흠모를 보내는 보통의 한 정 도사와 달리 책은 리영희를 통해 그가 가진 교양의 힘을 매개로 새로운 교양 목록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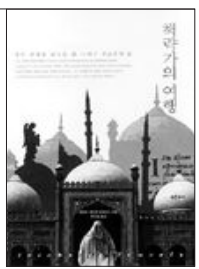
고병권, 천정환, 이대근, 안수찬, 홍세화 등 교수와 연구원, 기자, 대학생 등 다양한 필자군이 리영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선보인다.

(사계절·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책략가의 여행

내털리 제이먼 데이비스 지음



16세기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와 유럽, 이슬람과 기독교를 오가는 운명이 되어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었던 한 무슬림의 삶과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략가의 여행-어려 세계를 넘나든 한 16세기 무슬림의 삶’이 완역돼 나왔다.

책은 프린스턴대학교 전 교수 내털리 제이먼 데이비스의 2006년작으로 1982년 쓴 전작 ‘마르탱 게르의 귀향’의 심화·확장판격이다. 영화로 제작되며 저자를 세계에 알렸던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랑그독에서 마르탱 게르라는 농부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간 뒤 8년 만에 돌아와 잘 지내지만 결국 진짜 마르탱 게르가 나타나고 그가 가까

기독교 세계에서 ‘정체성 위기’ 겪은 무슬림 이야기

임이 밝혀진다는 세기의 사건을 주내용으로 한 저작이다.

이번 책의 주인공은 무슬림 알산 알와잔. 모로코에서 자라났던 알와잔은 무슬림법과 이라크를 공부했고, 파스 술탄의 외교관이 되었으며 그 덕분에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레반트 지방과 이스탄불까지 여행했다. 1518년 그가 탄배는 파스로 귀환 중에 기독교도 해적선에 나포되었고 그는 로마교회에게 남겨져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이후 ‘조반니 레오네’라는 이름으로 유럽 독자를 대상으로 아프리카와 무슬림 종교와 법, 그리고 이라크에 대한 이탈리아어·라틴어 저작들을 썼다. 1526년에는 아프리카 사회와 풍물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이자 여행기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우주·지리지’를 완성함으로써 학자로서 명성을 드높이게 된다. 그 뒤 1527년, 그는 북아프리카와 이슬람 신앙으

로 되돌아 왔다.

책은 저자가 ‘책략가’라 부른 한 신비한 인물의 희미한 흔적을 단편적인 증거를 삼거리 삼아 쫓아가는 탐정소설처럼 읽힌다. 기본적으로 알와잔의 행적을 쫓아가는 동시에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정치적·지역적 측면은 물론이고 의식주와 결혼, 섹스, 남녀 차이 같은 일상적 생활과 풍속까지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일종의 비교문화학 내지 비교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처럼 책은 ‘문명의 충돌’이 현실보다 더 나은 시점에서 문명간의 상호이해와 소통, 교류의 단초를 제공하며 이질문화와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제 ‘Trickster Travels : A Sixteenth-Century Muslim between Worlds’ <푸른역사·3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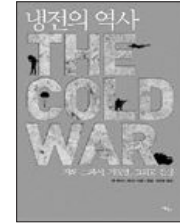
▲살아있는 시체들의 연애=세 뉴요커의 이상 아픈 스토리를 통해 현대인의 병적인 심리를 코믹하게 풍자한 장편소설. 작가 앤더나 필라필치는 사랑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살아 있는 시체들의 도시를 배경으로 욕망과 허영심, 낭만적인 사랑과 섹스, 강박증과 중독 등이 뒤엉킨 러브스토리를 들려준다. <작가정신·1만1천원>



▲엔싱클을 애지=타임지 전부편집장이자 전략자문기자인 키신지협회 매니징 디렉터인 조슈아 쿠퍼 라모가 예측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저자는 갈수록 예측 불가능으로 치닫하고 있는 세계상을 고찰하고, 그러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혁명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마·1만9천800원>



▲紳士の紳사들=‘캐발리와 클레이어의 놀라운 모험’으로 플러처상을 수상한 마이클 셰이본의 신작. 중세 유럽의 유대 왕국 ‘하지르’라는 낯선 시공간을 배경으로 돈키호테와 산초 같은 엉뚱한 노상강도 콤플렉스를 내세워 세 모험소설이다. 작가 특유의 반전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의 모험소설을 탄생시켰다. <사피엔스·1만2천500원>



▲냉전의 역사=‘냉전 역사학자들의 확장’이라 불리는 존 루이스 게이더스가 쓴 역사연구서로 냉전에 관한 역사와 세계 현대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류 절멸 위기에 놓인 아폴로 11호, 공포와 속임수로 잠탈한 ‘냉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속에서 역사적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핀다. 연대기 서술보다는 주제별로 접근하여 장편소설처럼 읽힌다. <에코리브르·2만3천원>



▲스티브 잡스의 명언 50=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CEO로서 그리고 2005년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문으로 ‘Stay hungry. Stay foolish.’(항상 굵주려라. 바보짓을 두려워 말라)를 통해 달변가로 널리 알려졌다. 언변의 달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한 이래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와 신제품 발표회, 대학 졸업 연설문 등에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50가지 명언을 소개한다. <스펙트럼북스·1만2천원>



▲한국의 메모 달인들=부지런한 메모습관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열네 명의 메모비결을 담았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김영세 이노비지 대표 등 우리가 알고 싶은 성공자들의 톨모델들이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불시에 채집할 수 있는 메모의 달인일 것을 주문한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원>



▲아사다 마오=한국인 김연아, 일본엔 아사다 마오. 밴쿠버 동계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본의 피겨 영웅 아사다 마오의 진솔한 모습을 일본 다큐멘터리 작가가 밀착 동행 취재해 엮은 포토에세이. 사지 구성이 화려하고 골목마다 선명도가 높다. 아사다는 경기의 채점 결과보다 자신과의 대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고지식한 연습 별레 아사다의 무대 뒤 이야기가 흥미롭다. <멜론·1만3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분점/지부)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임의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맞춤주변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부대나 전화 주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임대

위치	면적(평)	용도	월임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산동	(22,000평)	전달	10만원
나주산동	(15,300평)	조정	35만원
동명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용도	매매금액
첨단지구	37억원	3,300㎡	85억원
동명지구	7억원	1,700㎡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	200억원
상무지구	26억	6,500㎡	100억원
첨단지구	4억	1700㎡	28억원

맞춤주변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부대나 전화 주십시오★

분양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멜리스타워빌딩 대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공용품, 의류이탈렛,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레스토랑, 전문식당, 의류이탈렛,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비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어, 수학,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키이러온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수원동 롯데마트 옆 10×10×6m코너 상업용지270㎡ 부지매매,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수원동 주변대로(35m,4번로) 3층사무실 140㎡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수원동 삼성전지점 외곽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수원동 삼성전지점 외곽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120만원(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전문가/변호사 무료법률상담/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신속한 명도/정확한 권리분석/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고객님의 현상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군민시별/월별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박시별/상가	고객수 010-4848-2142	공장/토지	손해평가사 010-8811-2817
소계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부산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대구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대전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전남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전북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충남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충북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강원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경북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경남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충청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호남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제주	대지/건물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월/상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2010년 2월 28일(금)까지 정원 50명(15주과정)
정원 및 접수 236-3400

부동산경제를 통한 제테크에 관심있는 주부, 직장인
·실전경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및 경제업무종사자
·금융기관 대출, 채권, 담보 및 전입금배부자